

박은주

발리에서 한국을 대표하다

공감각 화가 박은주는 뮤지엄 파시피카
국제전 《Women Artists of
Asia-Pacific》에 참여한 유일한 한국
작가입니다.

2026년 10월 9일 - 12월 9일

MUSEUM PASIFIKA · NUSA DUA · BALI



《Swanlike》 앞에 선 박은주 · Museum Pasifika

01 · 핵심 정보

전시 한눈에 보기

30

여성 작가

12

참여 국가

47

출품작

1

한국 작가

전시

Women Artists of Asia-Pacific:
Nostalgia = Transendensi

2026년 10월 9일 - 12월 9일

장소

Museum Pasifika

ITDC Complex, Nusa Dua
Bali, Indonesia

작품

《Swanlike》, 2024
한지에 아크릴릭 · 95 × 65 cm
Museum Pasifika 소장

선정

박은주는 Museum Pasifika의 필리프 오지에 관장이 직접
선정했습니다.

공식 개막식

2026년 10월 9일 개막식에는 기링 가네샤 인도네시아 문화부 차관을 비롯해 외교 관계자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은주, 발리에서 한국을 단독 대표

공감각 화가 박은주는 발리 Museum Pasifika의 아시아·태평양 여성 작가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작가입니다.

한국의 공감각 화가 박은주가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의 Museum Pasifika에서 열리는 국제전 《Women Artists of Asia-Pacific: Nostalgia = Transendensi》에 한국 작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12개국 여성 작가 30인의 작품 47점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여성 미술의 기억, 정체성, 변화를 조명합니다.

Museum Pasifika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시아·태평양 미술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개 전시실에서 600점 이상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박은주는 Museum Pasifika의 필리프 오지에 관장이 아시아의 다양한 예술 현장을 보다 폭넓게 소개하기 위해 직접 선정했습니다. 이번 참여는 한국에서 출발해 캐나다와 프랑스에서 수학하고, 음악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어 온 박은주의 국제적 여정을 발리의 관객에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전시작 《Swanlike》(2024, 한지에 아크릴릭, 95 × 65 cm)는 카미유 생상스의 〈백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첼로의 선율과 피아노의 움직임은 푸른 색면, 리듬감 있는 형태, 겹쳐지는 질감으로 전환됩니다. 소리가 남긴 감각과 정서를 회화의 언어로 옮긴 작품입니다.

“음악은 제 안에 말과 이미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말은 때로 덧없고 붙잡기 어려워 사라지지만, 형태와 색채는 남아 회화가 그것들을 해방시킬 때까지 머뭅니다.”

박은주

Swanlike



음악이 색으로 피어나다

생상스의 〈백조〉에서 태어난 푸른 리듬. 첼로의 선율과
피아노의 움직임이 한국의 한지 위에서 색과 형태,
물성으로 이어집니다.

재료

한지에 아크릴릭
95 × 65 cm · 2024

소장

Museum Pasifika
Bali, Indonesia

영감

〈백조〉
카미유 생상스

Museum Pasifika 소장품이 된 작품



《Nostalgia = Transendensi》개막식에서 공개된 박은주의 작품은 Museum Pasifika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이번 소장을 통해 《Swanlike》는 아시아·태평양 미술을 대표하는 주요 컬렉션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Museum Pasifika가 새로운 아시아 미술 현장으로 시선을 넓혀 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작품은 2026년 10월 9일 개막식에서 관람객에게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전시장 중심에 설치된 작품은 한국의 한지, 서양 음악의 기억, 동시대 회화 언어가 만나는 지점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05 · 공식 개막식

Museum Pasifika · 2026년 10월 9일

왼쪽: 기링 가네샤 인도네시아 문화부 차관 부부. 오른쪽: 박은주, Museum Pasifika를 설계한 건축가 Nyoman Popo Priyatna Danes, Museum Pasifika 관장 겸 소유주 Philippe Augier.

외교 관계자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함께한 공식 개막식.

작가의 목소리



공식 기자회견

박은주가 Museum Pasifika에서 열린 전시 공식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ARTIST TALK

박은주가 전시 개막 직전 야외에서 열린 Artist Talk에 참여했습니다.

인터뷰 가능

박은주는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DfinArtists는 기사 작성에 필요한 추가 이미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07 · 작가

박은주

공감각 화가

서울에서 태어난 박은주는 한국, 캐나다, 프랑스에서 음악을 공부했으며 2005년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감각적 지각을 바탕으로 회화 작업을 전개합니다.

그의 작품은 한국과 프랑스, 캐나다, 인도네시아에서 소개되었습니다. 2023년 파리 개인전 《Korean Color Symphony》에서는 약 40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한지 위에서 소리는 색과 리듬, 물성이 됩니다. Museum Pasifika의 'Memory & Identity' 섹션은 개인의 기억, 한국의 전통, 동시대 시각언어를 연결하는 박은주의 작업을 확장합니다.

SBS 8 NEWS

눈으로 보는 음악, 귀로 듣는 색

박은주의 공감각과 음악적 경험에서 탄생한 회화를 조명한 2분 19초의 보도입니다.



활동

서울 · 캐나다 · 프랑스 · 인도네시아
음악 · 회화 · 공감각 · 한지

인터뷰와 추가 자료

DfinArtists는 작가 인터뷰, 추가 이미지, 전시 관련 정보 요청에 응답합니다.

인터뷰 언어

한국어 · 프랑스어 · 영어

사진 자료

기사 작성에 사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사진 크레딧 표기는 필수가 아닙니다.

DfinArtists

ARTISTIC DIRECTION · INTERNATIONAL DEVELOPMENT

Exhibitions · Concerts · Conferences

info@dfinartists.com

dfinartists.com



온라인 프레스룸

보도자료, 고해상도 사진, 추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작성

DFINARTISTS MANAGEMENT